

원정출산 한해 5천명

자녀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려는 이른바 원정출산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특정 계층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원정출산에 일부 중산층이 가세하면서 최근 전문 사이트가 생겨나고 원정출산 방식과 비용 등을 안내해주는 책자가 출간되는 등 서비스 업체까지 생겨나고 있다.

요즘 국제 공항 출국장은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는데 이들 사이로 출국하려는 만삭의 임신부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항공사에서는 승객의 안전을 고려해 임신 32주, 즉 8개월이 넘으면 탑승을 금지하고 있지만 32주가 넘는 임신부들이 서약서와 의사 소견서까지 제출하고 해외로 떠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한 임신부는 이미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둘째 아이를 낳으러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항공사 직원들은 말한다.

알선업체 10여개 성업중

이처럼 원정출산이 보편화되면서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문 알선업체가 10여개나 생겨나 성업중이라고 한다. 알선업체에서는 현지 시설을 촬영한 비디오와 각종 자료를 보여주며 상세하게 설명을 해준 뒤 출산과 산후조리, 그리고 시민권 획득까지 모두 처리해주는데 보통 2천만원을 받는다. 의사, 대학교수, 공무원, 사업가 등이 주고객층이며 고객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한다.

예비 어머니들은 어학연수도 1년에 2천만원은 드는데 남자의 경우 병역문제도 해결되면서 그정도는 별로 비싸지 않다는 반응이라고 한다. 이와함께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경우 원정출산 카페 가입자가 천명에 이를 정도로 원정출산 붐이 일고 있다.

이렇게 원정출산 붐이 일자 중산층까지 원정출산 대열에 가세하면서 지난 한해 동안 원정출산으로 낳은 아이가 5천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원정출산에 나서는지 일까?

미국 시민권 얻기 위해 원정출산

대도시에 사는 중산층 이상의 20-30대 예비 부모들의 상당수는 미래에 대한 보험으로 원정출산을 고려하고 있다. 원정출산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을 경우에는 미국에서 저렴하게 교육받을 수 있고, 부모들이 쉽게 이민갈 수 있으며, 한반도에서 유사 시 미국으로 피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녀가 장애를 입을 경우 미국의 복지 혜택을 누릴 수도 있고 한국에서 외국인 학교를 다닐 수 있다고 한다. 결국 이런 다양한 장점을 고려할 때 미국 시민권을 얻는 비용 몇 천 만원은 짝짓기라고 알선업체들은 예비부모들을 부추기고 있다. 여기에도 일부 부모들은 자녀가 불안한 나라에 살지 않도록 하는게 부모의 당연한 도리가 아니냐며 비뚤어진 자식 사랑을 하고 있다.

미국 이어 캐나다, 뉴질랜드도 인기

해외 원정 출산 지역도 미국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요즘은 비싼 미국 대신에 비용이 적게 드는 캐나다와 뉴질랜드 등으로 원정출산을 떠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미국은 숙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몇몇 국가 중 하나로 불법 이민자이든 여행객이든 미국 영토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다. 캐나다와 뉴질랜드도 미국과 같이 숙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현지에서 출산만 하면 시민권을 바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일간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최근 한국의 원정출산 세태를 꼬집으면서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기도 했다. 이 신문은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 의사의 말을 인용해 연간 한국 신생아의 1%인 5천여명이 매년 미국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나고 있다며 이 병원에서만 임신부 10명 정도가 매달 미국에서 아이를 낳고 있다고 전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보스턴, 하와이, 괌이 원정출산지로 각광받고 있으며 비단 한국인 뿐만이 아니라 홍콩과 타이완인들 사이에서도 원정출산이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대개 한국의 부유층 임신부들이 좋은 교육 기회와 병역 문제 혜택을 얻기 위해 원정출산을 선호하고 있으며 '출생에서 시민권까지'라는 광고가 한국어 웹 사이트에 오르는 등 원정출산 서비스 업체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인들이 미국 시민인 아이를 가지면 부모의 이민이나 미국 내 은행계좌 개설이 더 쉬울 것으로 믿고 있으며 특히 일부 산모들은 한반도 전쟁발발 시 탈출구로까지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의 부모들은 대학 입학이 날로 치열해지고 아

이들이 쉽없는 입시전쟁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에서 조금만 고생하면 한국보다 훨씬 나은 삶을 보장하는 미국 시민권을 일종의 보험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원정출산은 사회적 책무 외면한 행위

원정출산은 한마디로 아이에게 좀 더 나은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특히 남자는 병역부담까지 더는 일석 이조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이같은 측면에서 원정출산은 국경과 국적의 의미가 갈수록 퇴색하고 있는 글로벌 시대의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원정출산은 그러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통이 결여된데서 나타난 부정적 현상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결국 일부 계층의 원정출산이 국민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마저 외면하고 있을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한국민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원정출산이 비애국적이며 특권층에 너무 확산될 경우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만이 군복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자녀를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키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나라의 위기를 가정하면서까지 원정출산을 떠나는 부모들이 과연 자녀에게 조국의 참 의미를 제대로 가르쳐줄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7]



이광호 · KBS 해설위원